

군산시,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활성화 박차

대규모 수산물 저장시설·김 가공공장 등 건립 추진 수산업 부가가치 창출...고용 확대·소득 증대 기여

군산시가 수산물 가공 및 유통산업 활성화를 시장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군산시는 그동안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여장 축소 등으로 지역 수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과 마른김 가공시설 건립을 통해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산식품 산업을 생산·가공·유통이 아우러진 6차 산업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은 소용동 일원에 사업비 90억원을 들여 2019년까지 수산물 냉동·냉장·제빙·저빙시설을 신속할 예정으로 현재 기초공사 완료 후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수산물을 신속하게 처리·저장할 수 있어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산지

수산물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군산에서 연간 3만(전국생산량의 약 10%)에 이르는 물김이 생산되는데 불구하고 마른김 가공시설이 없어 전량 타지로 유출되던 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비응도동 일원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마른 김 가공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50여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및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며 마른 김 공장이 가동될 경우 조미김과 김부각, 김과자 등 2차 가공품 생산을 통해 2~3배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해망동에 있는 수산물종합센터도 해양수산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해양수산 복합공간으로 재탄생될 해망동 수산물종합센터 조감도.

시는 노후화된 미관과 안정성 문제가 이어져온 수산물종합센터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125억원을 투입해 해양수산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내·외 판매소득을 증대시켜 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기업 투자 잇따라

바이텍·카페에 입주 계약 등 외국사 포함 60개 업체 체결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30일 (주)바이텍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자를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앞서 (주)카페에, (주)정당F&B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분양계약을 맺은 바 있다. 바이텍은 올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13번째 업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외국투자기업 1개를 포함해 총 60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마쳤다. 바이텍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로 로열젤리를 효소처리한 뒤 분말제조로 가공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대량 양산체제를 갖추기 위해 7023㎡(2128평) 부지에 약 40억원을 투자한다. 업체는 2019년도 상반기 공장 착공에 들



지난 30일 (주)바이텍과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를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도행 바이텍 대표와 고성봉 익산시 식품산업정책보좌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어가 7월 중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신규 일자리도 15개가 창출된다.

이도행 바이텍 대표는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소비자 트렌드에 한발 앞선 식품산업의 발전 잠재력과 함께 R&D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시설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원료수급, R&D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입주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덩덕콩 국악놀이터’ 운영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이 어린이를 위한 놀이형 국악체험 프로그램인 ‘덩덕콩 국악놀이터’를 운영한다. 6~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채소 약기만

들기와 기본가락 배우기, 국악 동요에 따라 연주하기, 사자탈과 함께 춤추며 연주하기, 국악 체험극 ‘가얏고티라노-황금 똥의 비밀’ 감상하기 등을 진행한다.

내달 13~16일과 21~22일 등 6일에 걸쳐 하루 2시간씩 진행하며 한 차례에 60명씩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1인당 1000원이며, 문의는 민속국악원 장악과(063-620-2330)로 하면 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시보건소, 우수시책 장려상 지자체 경진대회 상생협력부문

정읍시보건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상생협력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읍보건소는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에서 경진대회 장려상을 받아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자체의 우수시책 발굴과 행정·재정 지원으로 지자체간 상생협력과 갈등관리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다.

정읍보건소는 각 시·도에서 추천한 37개 지자체 사례 중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장려상에 선정됐다.

정읍보건소는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2016년도에 지역행복생활 선도사업으로 서남권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또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 마을이장과 노인관련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상황발생 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 및 방법 등 생활 안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원, 의용소방대, 읍면사무소 등 지역기관 직원을 중심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전문기를 양성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 강천산 경관 한컷에 담아보세요”

군, 전국사진공모전 개최 1인 5점 16일 접수 마감 최우수상 상금 300만원

순창 강천산의 경관을 한 장의 사진으로 전국에 알리는 사진공모전이 열린다.

순창군이 주최하고 순창사진동우회가 주관하는 ‘2018 강천산군립공원 전국사진 공모전’은 강천산의 사계절 변화에 따른 자연경관을 활용한 스토리 사진 및 순창의 특색 있는 풍경사진을 주제로 지역, 연령, 자격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 출품료 없이 개인 1인당 5점 이내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시상규모는 대상 1점에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2점에 각 200만원, 우수상 3점에 각 상금 100만원과 특선 10점에 각 20만원, 입선 80점에 각 10만원 등 총 96점을 선정한 계획이다.

심사결과와 다음달 말 순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고 개별통지한다.



2018 순창 강천산군립공원 전국사진 공모전
공모기간 2018. 2.12. - 11.16.

사건 공모전 사진작품 접수는 11월 16일까지다.

순창군 관계자는 “사진동호인들 뿐만 아니라 사진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많은 참여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은 순창의 관광명소를 알리는 관광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iyg@

고창군립도서관, 청소년 위한 인문학 강좌 잇따라

오늘부터 총 5회에 걸쳐

고창군립도서관이 다양한 인문학강좌로 주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한다. 고창군은 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고창군립도서관에서 3회, 고창고등학교에서 1회, 영선고등학교에서 1회 등 총 5회 인문학 강의를 운영한다.

강의는 고창을 제대로 알고 역사적 자취와 문화, 사상을 살펴보는 시간부터 지역 청소년을 위한 강좌까지 폭넓게 마련됐다.

‘우리 고장 문화사상 교실’은 고창의 시문(詩文) 자료 강독을 통해 그 시대의 사상과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토론하며

그 이면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특강’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미래, 독서에 대한 다양한 강연으로 책임의 즐거움과 성숙의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또 청소년과 학부모가 같이 들을 수 있는 ‘독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강연을 운영해 올바른 독서의 중요성과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눈다.

강의는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립도서관(063-560-8051)에 문의하면 된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새만금 환경청, 겨울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새만금지방환경청은 겨울철 농도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한다.

점검은 11월 한 달 동안 병커C유와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업체와 레미콘·시멘트 제조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새만금환경청은 방진막과 살수 장비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운영 여부를 집중

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비산먼지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대기 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목격하면 국면 없이 128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6000만원)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